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40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간추린 지구촌 소식



지구촌 이슈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 참석 결과

-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Asia-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APFIC)가 2006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음
 - 현재 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APFIC은 아시아-태평양 수역내 해양생물의 적정한 이용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
 - 세부 활동으로는 수산자원 및 관련산업 현황 검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보존 및 오염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수행, 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측면에 대한 검토 및 어업인의 작업 조건 개선 등에 관한 권고, 양식어업 및 연안어업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수산관련 정보교류 및 연구사업 증진 등임

■ 저가어류(잡어) 관리에 대한 권고문 채택

-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양식어업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생사료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가어류(잡어)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음
 - 저가어류의 가격 상승은 개도국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수산제품의 수입과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음
 - 특히 세계 제일의 양식 대국인 중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양식어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APFIC은 이와 같은 저가어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가어류의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는데

- 세부 내용은 트롤어업 및 어획능력 감축 등 어업관리 증진, 인류 식량으로써 저가어류의 활용, 양식어업용 대체사료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임

■ APFIC 회원국, 자율관리어업 확대 중

- 현행 어업관리에 있어 어업관리 규모 확대, 생태계 기반어업 및 지방 분권화 영향 등으로 인해 어업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관리어업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획일화된 모델보다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각국은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를 위해 자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율관리어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APFIC은 공동어업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는데,
 - 주요 내용은 회원국간 비용 및 편익 등 공동어업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어업관리 참여 주체에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것임

■ 차기 작업계획을 선정

- 각국의 잡는어업은 지속가능성에 기초를 두기보다 단순히 경제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
 - IUU어업은 회원국 연안·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 국제적으로도 Eco-labelling, Traceability 등 관련 제도가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추세임
- APFIC은 차기 작업계획으로 어획능력 관리 및 수산물 교역 기준을 최우선 사항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APFIC에 관심 가져야

- 이번 회의는 APFIC이 정책자문기구로서 기능을 전환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의로써, 특히 필리핀의 경우 농업부 장관이 직접 APFIC 회의에 참석하는 등 동남아시아 권역 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부의장국으로 진출함으로써 기구내 위상을 더욱 강화하

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어장 진출 및 수산물 교역 증진 등을 위하여 동 기구를 통한 회원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증진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저가어류(잡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자료 :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 참석결과 보고서

<조정희, jcho5901@kmi.re.kr>



주요뉴스와 분석

■ 일본, 중국산 복어에 대한 검사 강화

- 일본의 수입 복어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연간 수입량이 2,000톤인데, 이 중 1,200톤은 시모노세끼(下關)어시장에서 판매됨
- 최근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끼시는 검사공회를 설립하여 중국산 복어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는 예전에 중국산 복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잔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 검사공회는 23개의 수산회사로 구성되었으며 후쿠오카(福岡)현의 유명 전문가를 초청하여 검사를 실시함
 - 따라서 중국산 복어가 일본에 도착하면 우선 검사공회의 검사를 거친 후 세관에서 재검사하는 이중검사체제를 실시함
 - 검사비용은 연간 450만 엔으로, 포르말린, 수은 등 5개 검사항목이 포함됨
- 만약 중국산 복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된다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시장으로 유통된 중국산 복어를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며 나아가 중국 수출 회사와의 거래를 임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검사공회는 밝혔음
- 이처럼 일본은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특히 소비자를 고려한 사전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수입수산물 중 중국산이 가장 많고 안전성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성 대책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이은화, yhli19@kmi.re.kr>

■ NACA, 책임 있는 새우 양식에 대한 8가지 원칙에 합의

- FAO 자료에 의하면 세계 새우 양식의 75%가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2003년 기준으로 160만 톤이 생산, 90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음
 - 이러한 새우 양식 산업은 지난 20년간 약 400% 이상 증가하였지만 그 여파로 아시아 맹글로우(열대우림)는 26%나 사라졌고
 - 더욱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 지역에서는 새우 양식으로 인해 99%의 맹글로

우(열대우림)가 사라졌음

- 이러한 가운데 인도, 중국, 호주, 북한 등 17개국으로 구성된 NACA(Network of Aquaculture Centre in Asia-Pacific)에서 책임 있는 새우 양식에 대한 8가지 원칙에 합의했는데
 - 이 원칙은 양식장, 양식장 설계, 수자원이용, 식품안전, 사회적 책임 등 8가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음
 - 올 9월에 열리는 FAO 회의에서 다른 국가들도 이 원칙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 FA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개도국의 수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예전부터 수산물은 개도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고 개도국은 잡는 어류뿐 아니라 양식 어류도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 양식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각국은 새로운 양식장을 많이 필요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원은 훼손되고 환경오염과 각종 병폐들이 발생하였음
 -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 개도국들은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자원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 또한 이런 노력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만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개도국들이 지역 수산기구를 설립하거나 각국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강형덕, thymos@kmi.re.kr>

■ 미국 소비자 선호 조사 결과 반영, 월마트 자연산 새우만 취급

- 미국 소비자들은 양식산 새우보다 자연산 새우를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대형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앨라배마, 플로리다, 텍사스 주의 약 300여 점포에서 미국에서 어획된 자연산 새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겠다고 밝혔음
 - 자연산 새우는 'Penguin 냉동식품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해당 업체는 미국에서 자연산 새우를 공급하는 굴지의 업체 중의 하나임
 - 월마트는 지난 2005년 11월에 자국산 새우와 수입산 새우를 900개 점포에서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앨라배마, 플로리다, 텍사스 주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자연산 새우만 취급하기로 결정한 것임
- 미국에서 소비되는 새우의 85%는 중국을 비롯한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월마트의 이 같은 결정은 대미 시장 수

출비중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미국내 새우 생산업자와 소비자들은 월마트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반기면서 향후 자국의 새우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러한 미국의 반응은 자국 새우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 태국 등지에서 값싸게 수입되는 새우를 막아보자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가능하나, 이러한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 소비자들이 자연산 수산물을 선호한다는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여짐
 - 현재 자연산 새우가 판매되는 3개 주가 미국 남동부의 해안과 가까이 위치한 점이 자연산 새우를 더욱 선호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미국 소비자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과 더 이상 저렴한 가격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정명화, jmh@kmi.re.kr>

■ 미얀마, 새우생산업자와 가공업자간의 직접적인 유대 강화

- FIS(Fish Information & Service)의 8월 29일자 소식에 따르면 새우 생산업자들이 몇 몇 큰 가공 공장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부화장 운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 설명회는 4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새우 생산업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약약품이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유기적인 방법으로 새우를 양식하는 방법을 배웠음
 - 신선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된 양식 새우를 신선한 상태로 바로 가공 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대형 가공업자들과 새우 생산업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수적임
- 현재 미얀마 새우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새우와 비교하여 품질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시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임
 - 미얀마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미얀마 새우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실행· 가능한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새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미얀마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역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가공업체와 생산업

자들 간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기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가지고 생산한 원재료를 가공하면 가공업체 뿐 아니라 생산업자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 강화를 통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
- 아울러 이러한 관계 강화는 생산업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해 줄 것이며 가공업체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원재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 이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강형덕, thymos@kmi.re.kr>



간추린 지구촌 소식

■ 올 상반기, 중국 해양산업 생산액 8,000억 위안 초과

- 중국 국가해양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해양산업 생산액은 8,441억 위안(101조 2,9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6% 늘었음
 - 이 중 해양 제1·2·3산업의 비중은 각각 10:42:48임

■ 중국, 러시아와 적조경보시스템 공동 연구

- 지난 8월 27일에 중-러 해양전문가포럼에서 산둥(山東)성해양수산연구소와 러시아 과학원 원동지사의 해양생물연구소는 적조경보시스템에 대해 공동 연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방글라데시, 쓰촨성으로 수산물수출 계획 발표

- 방글라데시 주중대사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의 룡첸(龍泉)수산도매시장의 건설계획을 보고 향후 방글라데시의 수산물을 청두시로 수출할 것이며 나아가 중국 서부시장으로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일본, 미국으로 고등어 수출 늘어

- 올 상반기 일본은 미국으로 고등어를 1만 1,500톤 수출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톤 늘었음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북유럽산 고등어의 가격이 올라 일본산으로 대체한 것으로 풀이됨

■ 일본 농림수산성, 아시아 5대 도시에 일본식품 상설판매소 개설

- 농림수산성은 일본 식품·농림수산물의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2006년도 농림수산물 등 해외판로 창출·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5개 도시(텐진,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방콕, 싱가포르)의 고급백화점에 상설판매소를 설치하고 거래품목과 판매일정 등을 공표하였음

- 각 도시에서는 일본산 고급과일, 신선야채, 어개류, 소주·청주, 가공식품 등의 지속적인 판매활동과 일반소비자를 위한 요리강습회, 잡지 등의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를 공급할 예정인데, 일본은 이를 통해 아시아 각 국가에서의 일본식품 브랜드 정착을 도모하고 있음

■ 교토지역, 농림수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로 농림수산업 취업상담 21% 증가

- 농림수산업 취업희망자를 지원하고 있는 교토부(京都府) 농림수산업 입문지원센터의 상담건수가 2005년도에 총 656건으로 전년대비 21%(114건)나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9세 이하가 469건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 농림수산업 입문지원센터는 2002년도부터 교토부 내에서 농림수산업에 취업할 경우 사전준비, 연수, 지원제도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러시아 국경경비대, 일본어선 총격에 이어 중국 등 불법어선 나포 강화

- 홋카이도(北海道) 네무로시(根室市)의 어선을 총격·나포한 러시아 국경경비대는 21일까지 극동해역에서 중국 등 외국선박을 포함한 어선 5척을 불법어업 등의 용의로 나포하였음
- 러시아에서는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최근 국경감시에 대한 감시 강화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음

■ 베트남, 수산물 관세 감축 예정

-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 5년 안에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38%까지 감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 협정을 올 5월에 끝냈고 본회의 협상만 남겨두고 있어 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 EU, 어획 능력 개선 위해 262만 유로 지급

- 유럽위원회는 모리타니아 수역에서 조업 중인 선박의 어획 능력 개선 계획에 따라

262만 유로의 집행을 승인하였음

- 이 계획의 목적은 항해 기술을 극대화시키고 선박 안전을 위한 것으로 이런 계획으로 인해 경제적 이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농어 잡이 어구 제한으로 쿼터제 관리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마이클 에슬리 주지사는 물무늬 농어를 어획할 때 사용하는 그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곧 발효된 예정임
 - 현재 물무늬 농어는 주로 예인망을 사용하며 심해의 크기가 큰 농어는 자망으로 어획하는 등 동시에 두 가지 어구를 사용해 왔음
 - 그러나 두 가지 어구를 사용하여 어획한 농어에 대한 쿼터량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한 가지 어구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에 따라 어민들은 어획시 예인망과 자망 중 한 가지 어구만 사용해야 하며 어구 방법을 바꾸어서도 안 됨

■ 미국 캘리포니아주, 9년만에 전복 채취 재개

- 캘리포니아 수산위원회(California Fish and Game Commission)는 산미겔 섬(Miguel)에서 9년 동안 채취가 금지된 붉은전복의 채취가 5일간의 자원량 검사 실시 후 재개될 것으로 보임
 -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붉은 전복과 흰 전복은 고유한 맛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크기도 각 각 10인치와 12인치까지 성장함
 - 그러나 1997년 캘리포니아 남부의 산미겔 섬에서 채취가 금지되었으며, 2001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어종으로 등록되었음

■ 캐나다, 연어 회귀율 저하로 연어잡이 시즌 조기 마감

- 캐나다 Fraser 강 홍연어잡이가 조기 마감되었는데, 이는 연평균 400만 마리 정도의 회귀율을 보이던 연어가 300만 마리로 줄어들었기 때문임
 - 2002년에 엄청난 수의 연어가 회귀하여 산란하면서 많은 치어가 생산되었는데, 이로 인해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치어의 크기가 평균치보다 작아졌고, 이 상태로 바다로 나가면서 생존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음